

발간되지 않았던 이영기 님께

미발간서의 시간

상해집권 권 초상. VOL.2

중요공백을 공개해 비껴왔던 비

대학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 우리는 '대학알리'입니다.

[대학알리란?]

대학알리는 대학 본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을 가지며, 대학생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법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이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단순한 언론사를 넘어 공익을 위한 대학생 연대체이자 활동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과 비전]

기존 학보사가 대학 본부의 예산과 인사에 종속되어 겪는 '편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대학생이, 대학생을, 대학생에게 알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대학·청년 이슈를 당사자의 시각으로 직접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 400개 대학에 지부를 설립하여 300만 대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알리

대표의 편지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대학알리 대표 기하늘입니다.

지난 2025년 하반기 동안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년간 대학알리 대표를 맡으며 여러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대학언론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고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 사심이 듬뿍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대학사회의 검열과 대학언론에 대한 학교 본부의 압박 등으로 대학언론 내 미발간 기사를 쉽게 찾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제 예상보다 더욱 다사다난한 흐름을 지나왔습니다. 기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스스로 미발간 기사를 찾아 발품을 파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언론의 탄압과 검열은 여전히 존재하고 발간되지 못한 채 컴퓨터 파일 속에 잠들어있는 기자들의 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연락을 넘어 대학알리 내 기자들을 통해 타 학교의 사례들을 찾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더이상의 기사 검열을 막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어워드 진행을 통해 또 다른 기사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모든 미발간 기사를 세상에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대학언론에 여전히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남겼다고 믿습니다. 대학알리는 앞으로도 발간 여부와 상관없이 기자들의 기록과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학언론 간의 연결과 연대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알리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

쓰였지만, 끝내 발간되지 못한 기사들이 있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편집권 침해로 인해 발간되지 못한 대학사회의 이슈들을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현재 전국의 많은 대학언론은 학교 본부의 간섭과 편집권 침해, 예산 축소, 내부 구조의 취약성, 인력 부족 등의 문제 속에서 주요 기사들이 발간되지 못하거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좌초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학내 비리, 인권 침해, 행정의 문제를 다룬 기사일수록 검열이나 발간 불허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 사회 내부의 비판적 담론 형성을 위축시키고, 언론이 수행해야 할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은 기사만이 아니다.

발간되지 않은 기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기록의 기회이며, 질문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학언론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학내 언론은 점차 감시 기능을 상실한다. 그 결과 대학 사회의 공론장은 축소되고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채 반복된다. **침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그렇게 쌓여간다.

그래서 우리 대학알리가 발간한다.

대학알리는 비영리 독립언론으로서, 각 대학에서 발간되지 못한 기사들을 수집하고 검토해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발간하는 대안적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개별 대학의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학언론 전반에 반복되는 편집권 침해와 검열의 구조를 드러내고, 대학 사회 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

발간되지 못했던 기사들이 다시 공론장에 진입할때

억눌렸던 목소리는 사회적 질문이 된다.

이 지면은 그 첫 번째 기록이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경남대 체육교육과 교수 음주 난동으로 물의 빚어

포럼 참석차 방문한 제주도 음식점에서 난동
종업원에게 욕설 및 폭행

경남대학교는 2023년 11월 11일 자대 소속 교수의 음주 난동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나 대학 측으로부터 기사 발행을 제지받은 까닭에 실제 기사로 발행되지는 못했다. "총장 명의로 발행되는 학보에 담기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이 검열의 이유였다. 이미 사건 소식이 기성언론을 통해 학생사회에 퍼진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대학교는 압박에 의해 추가적인 취재를 불허당했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기획을 통해 당시 발행되지 못했던 소식을 복원해 본다.



▲ 해당 사건에 의견을 표하는 에브리타임 게시글 (사진= 경남대 에브리타임)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소속의 한 교수가 음식점에서 음주 후 난동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교수는 2023년 11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교수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다 춤을 춰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밀치며 폭언을 가했다. 또한 그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 원을 환불받은 후 10배에 달하는 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제외한 영업장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제한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경우 영업 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수는 난동을 벌인 당일 제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한 경남대 재학생들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통해 항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남대 A 학생은 "사범대학 교수가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며 분노했다.

원지현 기자
(krchloe1234@naver.com)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중앙동아리 지위 강등

정정헌, 1·2학기 연속 재등록 부결
회칙에 없는 '사진상 인원 미비'로 부적격 판정
"학내 인권 동아리 전반 존속 어려움" 호소

대학은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가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의 중앙동아리 강등 사건과, 이를 다룬 성균지 기사 삭제는 대학 공론장의 축소를 보여준다. 정정헌 재등록 거부 사태는 대학 학내 특별기구의 위기를 반증하는 동시에, 학생 자치 활동의 의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탈정치화되는 대학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 본 기사는 성균지 113호 『잔상』에 게재되지 못한 기사 「학생-자치-기구, 위기의 스펙트럼 속 우리 대학의 좌표」를 참고했다. 해당 기사는 교지 발간 전 학생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학내 타 단체와의 갈등 우려'를 이유로 제외되었다. 본보는 미발행 기사가 다룬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 정정헌 46호 『타자』 (사진=정정헌 제공)



▲ 정정헌 동아리방 내부 모습 (사진=정정헌 제공)

불명확한 '인원 미비' 기준

본보는 정정헌 편집장 초은(필명)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위를 확인했다. 정정헌은 재등록 서류 제출 후 동연 회장으로부터 '2024년 활동 인원 미비'를 사유로 소명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정정헌이 어떤 점이 미흡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자 동연 측은 "활동 인원 미비는 첨부된 사진상 인원 미비를 의미한다"며 "명부 제출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인원이 나온 사진을 첨부하라"고 답했다.

초은은 이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동아리연합회칙에 따르면 활동 인원 증빙은 정회원 명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회칙상 재등록 요청 동아리는 ▲등록원서 ▲직전 연도의 활동 보고서 ▲향후 1년간의 활동 계획서 ▲향후 1년간의 예산 계획서 ▲20인 이상 서명한 회원 명부 ▲(회칙 변경 시) 동아리 회칙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성대신문(제1744호)은 중앙동아리 재등록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부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동연 회칙에는 제출 서류만 명시되어 있고, 부적격 판단 기준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사진상 인원 미비' 기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초은에 따르면, 당시 소명 후 받은 동연의 '검토 보고서'에는 사진 속 부원의 얼굴과 활동 내용상 이름을 대조하여 "A는 자주 등장하고", "B는 학부생이 아니다." 등의 설명이 적혀있었다.

정정현은 필명을 사용해 집필 활동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아리다. 초은은 "사진과 이름을 대조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러웠다"며 "사진을 통한 판단이 다른 동아리에도 적용된 기준인지, 활동 사진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학기 재심사, 또다시 부결

지난 1학기 부결 소식 이후 정정현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부결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는 의견과 2학기 재심사 준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초은은 "2025년 4월 당시 대학가 페미니즘 백래시 이슈가 많아, 정정현 문제가 외부로 퍼질 경우 추후 재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부원이 '동아리방'에 관한 만큼은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동아리 자격을 잃으면 학생회관 편집실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2학기 재심사를 준비하기로 결론 내렸다.

성균관대 동연은 중앙동아리가 준중앙동아리로 강등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중앙동아리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회칙에 따르면 재심사에는 기존 서류에 더해 '30인 이상 서명한 회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초은은 1학기 부결 사유였던 '사진상 인원 미비'를 반박하기 위해 활동사진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진상 활동 인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학생회관 외벽에 걸린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현' 근조 현수막 (사진= 정정현 SNS)

정정현의 전체 활동 인원은 30명이 넘지만, 여성 인권을 공부하고 교지를 출판하는 동아리 특성상 휴학생, 졸업 유예생, 대학원생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따라서 학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기 명부 작성이 불리한 상황이다. 정정현은 정회원 자격이 있는 부원 위주로 명부를 우선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정현은 동연으로부터 다시 소명 요청을 받아 필명·실명 대조표를 제출했다. 초은은 "실질 참여 인원 증빙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동연은 '재등록 승인' 안건으로 전동대회에 의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9월 30일 개최된 2학기 전동대회에서도 정정현의 재심사는 부결되었다. 회의 참여 인원 대부분이 기권과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는 과반에서 3표가 모자랐다. 재심사가 부결되면 당해 학기를 포함해 2개 학기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활동·인원으로 동아리 승격을 요청할 수 없다.

“인권 동아리 전반의 존속 어려움”

초은은 “이번 부결은 단순히 특정 회차 감사의 판단이나 운영위원회의 백래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학내 인권 동아리들이 겪어온 사회적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어 “사회 전반에서 인권 담론의 무게가 달라지고 대학 내 학생 자치 기반이 약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성 소수자 의제 등 인권 담론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정정헌은 이번 부결이 개별 동아리의 운영 문제만이 아니라, 학내 인권 동아리 전반이 맞닥뜨린 ‘존속의 어려움’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 사회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속을 이어가야 할지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응을 묻자, 초은은 “정정헌 동아리 자체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준중앙동아리라고 해도 계속 글을 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편집실 사용 권한과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잃게 되어 활동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2026년 2학기 중앙동아리 재등록 절차 전까지 한 학기 동안 동아리방 유지 자격을 요청하는



▲ 정문 표지석, (사진= 성균관대학교 S-갤러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방법을 사용한 타 동아리 선례가 존재하고, 공간 확보 및 승격 시도 자체가 유의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학내 유일 여성주의 교지로서 ‘학생 사회 반페미니즘 기조 실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미 재심사가 끝났기에 동연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적극적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자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정헌 사례는 학생 사회를 이루는 자치적 결정이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남긴다. 미발행된 성균지 기사 「학생-자치-기구」는 “우리 대학 학생 자치와 제도가 학생 사회와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묻는다.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는 학생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단과대학, 학과 등 특정 단위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만을 위주로 학내 주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안건 논의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것이 정정헌과 같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특별기구’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특별기구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다룬다.

박서연 기자
(syeeone319@gmail.com)

참고자료

이예원, 〈학생-자치-기구, 위기의 스펙트럼 속 우리 대학의 좌표〉, 성균지 113호(미발행)
정예림, 〈중앙동아리 재등록 절차,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됐나〉, 성대신문, 제1744호
성균관대학교 동아리연합회칙, 성균관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대학언론인이 만든 대학언론인 교육 프로그램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8기

대학언론인 아카데미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대학알리가 대학언론인의 교육을 위해 공동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언론인 아카데미의 미션

각 대학언론인이 자력으로 신입 대학언론인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언론 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싶거나 언론고시 준비를 시작하려는 대학생이 사교육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학언론인 아카데미의 원칙

완전 무상, 실무 중심, 온라인

시그니처 코스

내용 : 코스 별로 대학언론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

일시 : 매년 2회 진행 (3, 9월)

방법 :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평일 저녁 실시간 강의

클래스

내용 :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

방법 :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연사 1인이 1회 강연

세션

내용 : 대학언론인이 직접 강사가 되어 다른 대학언론인에게 강의를 진행하는 상시적 기초소양교육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서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더 알아보기>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8기

지난 2025년 9월 8일부터 29일, 대학알리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주관 하에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시그니처 코스 8기>가 개최되었다. 총 11명의 현직 언론인 및 전문가가 13개의 강의를 맡았다. 8기에는 총 84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강연과 네트워킹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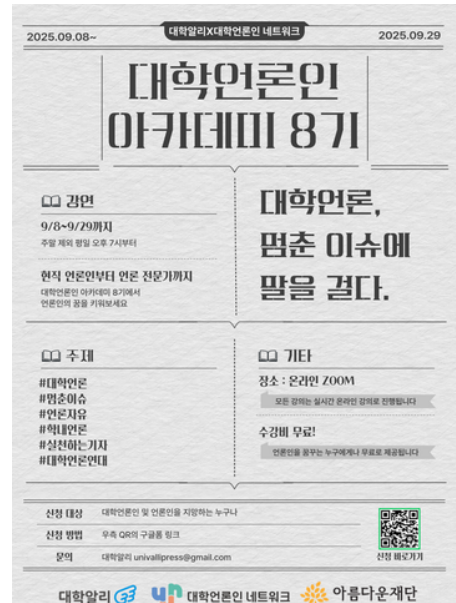
첫째 주에는 정한진 KBS 시청자센터 미디어교육팀 팀장의 '방송 현장의 사례로 살펴보는 데이터 저널리즘', 백소아 한겨레 기자의 '보도사진 찍기와 활용', 박수정 스포츠뉴스 PD의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없는 콘텐츠',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의 '어제의 생각이 담긴 오늘의 낯은 표현과 이별하기' 강의를 진행했다.

날짜	시간	강사	강의명
9/8	19:00	정한진 팀장(KBS 시청자센터 미디어교육팀)	방송 현장의 사례로 살펴보는 데이터 저널리즘
9/9	19:00	백소아 기자(한겨레)	보도사진 찍기와 활용
9/10	19:00	박수정 PD(스포츠뉴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없는 콘텐츠
9/12	19:00	장슬기 기자(미디어오늘)	어제의 생각이 담긴 오늘의 낯은 표현과 이별하기
9/15	19:30	최영준 티칭펠로우(구글 뉴스랩)	발제에 효과적인 검색법
9/17	19:00	박유찬 조감독	무대 뒤의 커뮤니케이션 : 아이돌 콘서트 VCR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까
9/18	19:00	홍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언론보도 법적분쟁 예방과 대응
9/19	19:00	홍주환 기자(뉴스타파)	탐사보도의 경험과 기획
9/22	19:30	최영준 티칭펠로우(구글 뉴스랩)	AI 도구 활용법
9/23	19:00	김영건 기자(쿠키뉴스)	'덕업일치' 스포츠 기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9/24	19:00	심하연 기자(쿠키뉴스)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 무너지지 않는 뼈대 세우는 법
9/25	19:00	김준환 기자(한국대학신문)	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만드나,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9/29	19:30	최영준 티칭펠로우(구글 뉴스랩)	오픈소스 조사도구 활용법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8기 스케줄표 (사진= 대학알리 제공)

둘째 주에는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의 '발제에 효과적인 검색법', 박유찬 조감독의 '무대 뒤의 커뮤니케이션 : 아이돌 콘서트 VCR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까, 홍지형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의 '언론보도 법적분쟁 예방과 대응',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의 '탐사보도의 경험과 기획' 강의를 이어졌다.

셋째 주에는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의 'AI 도구 활용법', 김영건 쿠키뉴스 기자의 "덕업일치" 스포츠 기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심하연 쿠키뉴스 기자의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 무너지지 않는 뼈대 세우는 법', 김준환 한국대학신문 기자의 '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만드나,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강의를 진행했으며, 넷째 주에는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의 '오픈소스 조사도구 활용법' 강의를 마지막으로 약 3주간의 여정을 마쳤다.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8기 홍보물
(사진= 대학언론인네트워크 홈페이지)

[일시]
2025년 9월 8일~ 9월 29일
(월~금) 저녁 19시-20시 사이

[장소]
온라인 (Zoom)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제1회 대학언론인 어워드

#발간되지않은이야기들 #대학언론연결프로젝트
#연대 #대학알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언론의 현실>

"발행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잠든 진실을 꺼내주세요" 전국 대학언론은 현재 학교 본부의 간섭과 예산 축소라는 거대한 벽에 마주해 있다. 학내 비리, 인권, 행정 비판을 다루려 할수록 검열의 가위질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이러한 구조적 검열은 학생기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대학의 감시 기능을 상실케 하며, 우리들의 공론장을 축소시킨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와 대학알리가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이 '좌초된 목소리'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1회 대학언론인 어워드 (사진=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스태프 제공)

<행사 정보>

1. 무엇을 출품하나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행되어 대학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콘텐츠, 대학본부의 검열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수정이 불가피했던 콘텐츠

2.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 **'따스한 연대'**

외부의 권위적인 심사위원은 없다.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대학언론인들이 서로의 기사를 읽고 심사함으로써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눈다. 서로의 노력을 축하하며 공고한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제1회 대학언론인 어워드

행사 취지
대학언론인들이 문제를 알리고 목소리를 관하여 시민들이 진화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대학언론의 검열로 출판 이야기까지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자리.

공모분야
취재·보도·영상·사진·기자단·특집·특종 등 모든 형태의 대학언론에서 발행된 콘텐츠
* 주제 무관, 형태 무관

공모기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행되어 대학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콘텐츠. 대학본부의 검열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수정이 불가피했던 콘텐츠

응모자격
전·현직 대학언론인
개인 또는 최대 5인의 팀으로 출품 가능
한 언론사에서 최대 3인 출품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QR코드

공모일정

예선 접수기간	11. 10 (월) ~ 12. 08 (월)
예선 심사기간	12. 09 (화) ~ 12. 12 (화)
예선 결과 발표	12. 13 (화)
본선 PT·시상	12. 27 (토) 13:00 장소: 서울시공의활동지원센터 401호

심사기준
소재의 참신성(10), 콘텐츠의 완성도(20), 공동체 연대기세(30), 변화성과 담력(40)

시상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유역사항

- ▶ 출품 1건당 1건에 한하여 출품가능
- ▶ 본선 진출 시 본 행사에 100만 원, 동아리활동 센터로 발행
- ▶ 1~3위에게는 100만 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출품 1건당 1건으로 출품 (개인 신청자만, 동일 기관 중복 출품은 불가)로 출품한 경우 출품 1건당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수상자는 출품한 언론사(개인) 또는 언론사(단체)에 연락하여 수상금 수령을 위한 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상자에게는 출품한 언론사(개인) 또는 언론사(단체)에 연락하여 수상금 수령을 위한 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univjournalist@gmail.com
010-9923-4587

주최: **UNIST**, **한민대연대** | 주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알리**

▲제1회 대학언론인 어워드 홍보물
(사진= 대학언론인네트워크 홈페이지)

<공모요강>

접수 기간: 2025년 11월 10일~ 12월 8일

결과 발표: 12월 13일

본선 및 시상: 12월 27일 13:00 / 서울시공의활동지원센터 '모이다'

참여 자격: 전·현직 대학언론인 (개인 혹은 5인 이하 팀)

접수 방법: 하단 QR코드 스캔 후 온라인 접수

<어워드 이후, 더 넓은 공론장으로>

"기록은 자산이 되고, 보도는 힘이 된다."

디지털 아카이빙: 본선 진출작은 대학알리의 특별 간행물에 수록되어 장기적인 자산으로 기록된다.

기고 및 재보호: 검열된 기사는 희망 시 대학알리를 통해 온라인 발행되며, 프레시안 등 협력 언론을 통해 기성 언론계와 시민사회에 전달되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다.

콘텐츠 재구성: 카드뉴스, 영상 인터뷰 등 시각 콘텐츠로 제작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된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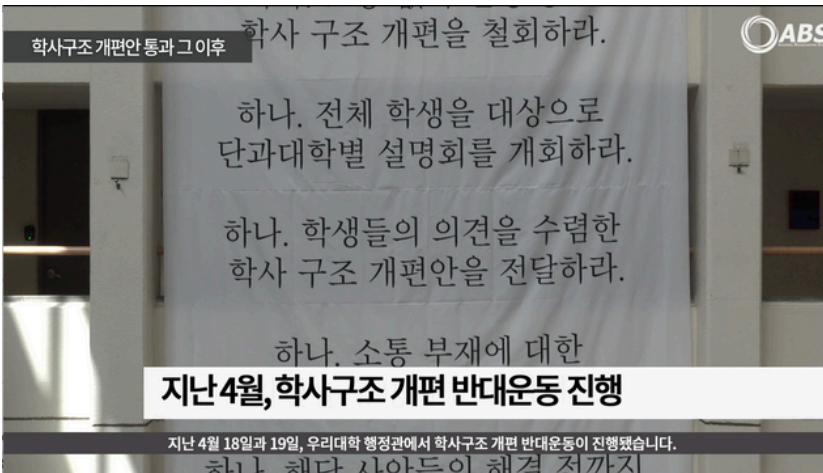
건국대 학사구조 개편안 통과,

그 후... 소통 없는 일방통행에 학생들 '막막'

건국대 학원방송국 ABS (손민정·임성민·홍혁재·김연우)

학사구조 개편 과정의 의사소통 부재

보도되지 못한 120일의 기록: 건국대 ABS가 끝내 지키고자 했던 가치



▲ 학사구조 개편안 통과 그 이후 모습 (사진 = 건국대 ABS 영상 일부)

<보도가 멈춘 세 번의 순간>

2024년 2월부터 약 4개월간, ABS는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사회의 저항을 집중 취재했다. 하지만 제작된 세 편의 영상은 끝내 송출되지 못했다. 첫 번째 영상은 시기상조이며 심층 보도가 아니라는 미디어 센터장의 판단으로 송출이 불가되었다. 또한 두 번째 영상은 학교 측 의견이 부족하여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판단으로 불가되었다. 마지막 영상은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송출이 안되었다.

<기습 개편과 거부된 취재원, 그 긴박했던 현장>

취재 과정은 투쟁과 같았다. 2월 말 설명회 자료 입수를 시작으로 3월 초 개편안 통보까지, 본부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4월 23일 오전 7시 30분, 규정심의위원회가 기습적으로 개편안으로 처리하던 순간에도 ABS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을 지켰다.

<정규 보도의 공백을 메운 '연대'의 힘>

정규 보도는 막혔지만, ABS는 멈추지 않았다. 숏츠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인스타그램 조회수 3.5만 회와 에브리타임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정규 보도의 공백을 메웠다.

<ABS가 지키고자 했던 3가지 가치>

비록 정규 영상은 송출되지 못했지만, 건국대 학원 방송국은 ABS는 다음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서사적 완결성: 사건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관점의 다각화: 본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학교, 총학생회, 폐과 예정 학과 학우들의 목소릴 균형 있게 담기 위해 수 차례를 컨택을 시도했다.

취재의 심층성: 단순 현장 중계를 넘어 사건의 이면과 향후 미칠 영향까지 파헤쳤다.

<비판을 넘어, '연대'로>

이번 취재의 최종 목적은 단순 비판이 아니었다. 특정 학과의 문제를 학교 전체의 담론으로 확장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 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건국대 학원 방송국 ABS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기하늘 대표

부족한 점이 많은 사업이자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연대와 협동의 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비영리독립언론'이라는 우리의 역할과 힘에 의문을 품기도 했으며 그 본분에 동기를 받아 다시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검열은 여전히 있다는데 왜 실제로는 찾아보기 어려울까', '검열 당한 기자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걸까', '학교에 검열 당했다고 해서 이걸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 걸까?'라는 남들이 보면 다소 황당하지만 가장 고민해야 할 원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은 또 다른 탄압과 검열이 두려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발간된 기사들을 직접 읽어보고 취재기자들과 대화하고 당사자와 소통하며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탄압은 또 다른 탄압을 낳고, 검열은 또 다른 검열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대학사회와 대학언론이 스스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존재가 너무 커서, 그 안에 있는 어른이라 불리우는 존재들이 예비사회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끊어내고 대학언론이 진정한 대학언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연대'라 이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알리는 그 길에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입니다.

김태섭 편집국장

코로나19 이후 대학언론은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대학언론 지역 협의체는 사라지고, 심지어 교내 언론사끼리의 교류마저 끊겼습니다. 연대하지 않으니 대응할 수 없었고, 대응할 수 없으니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기사들은 늘어났습니다.

대학알리가 선택한 방향은 '연결'이었습니다. 전국 대학언론인들이 모여 자신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습니다. 말소될 위기였던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 번의 멈춤을 겪고도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대학언론 위기론도 어느덧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언론은 오늘도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언론은 공동체와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마감, 연대보다는 회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학언론의 위기론을 많은 대학언론인이 통감하고, 공통적인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언론이 하나로 연결되어 마주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결국 대학언론이 위기론 없이도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대학알리의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신수민 부대표

먼저 뜻깊은 기회로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훌륭한 결과물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 애써주신 기하늘 대표님, 조연우 부대표님, 김태섭 편집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기사를 작성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여전히 '발간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온전히 다 조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는 목소리가 단 하나도 남지 않는 그날까지, 대학알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우 부대표

발간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학언론의 역할과 현실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학언론이 처한 위기의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본 사업을 통해 그 위기가 단순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편집권 침해, 구조적 제약, 그리고 대학사회 내 언론의 위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간되지 못한 사례들을 직접 다루며, 대학언론이 겪는 문제들이 개별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언론 전반에 걸친 공통의 과제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언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은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학언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대학언론이 고립된 채 각자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알 권리와 목소리를
지키고 싶다면?

대학알리 후원하기 

대학알리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은행
1005-303-808966
